

2 과 가장 중요한 쟁점; 사랑, 아니면 이기심? 2024 년 4 월 13 일

일.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배우는 교훈:

❖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

-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 오셔서 우셨습니다(눅 19:41-44).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하게 거절할 때 당할 끔찍한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마 23:37).
- 예수님은 이 비참한 일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요 5:39-40, 겔 18:31-32).
-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66 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학대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파벌들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우는 중에 로마군인들은 그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서기 70 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타이투스장군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고 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 그러나 역사에는 사탄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역하게 했고 그가 로마인들을 움직여 보복하도록 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귀가 직접 지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떠나서 멸망과 죽음만을 추구하는 원수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심.

-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파멸을 피해 도망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빨리 도망가라는 표시로 정해 주셨습니다(눅 21:20).
- 가이우스 케스티우스 갈루스 장군은 서기 66 년에 이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성의 포위를 풀고 후퇴했고, 유대 열심당 지도자 엘르아자르 벤 시몬(Eleazar ben Simon)은 로마인들을 추격하여 패배시켰습니다.
-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성의 포위가 풀리자마자 즉시 성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 몇 달 후, 네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장군을 보냈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67 년부터 70 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 보호하려 하십니다(시 46:1; 사 41:10).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히 11:35-38).
-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첫 크리스천들로부터 배우는 교훈:

❖ 핍박 받는 중에 믿음을 지킴.

- 그 시작은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했고(행 2:41; 4:4) 믿는 사람들은 강한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행 4:31; 5:42).
- 그러나 원수들은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먼저 위협하고(행 4:17-18); 형벌(행 5:40)을 내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행 7:59).
- 사울의 박해를 피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행 8:1). 그러나 그 빛이 꺼지기는 커녕 믿는 사람들의 신실함으로 온 세상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행 8:4, 11:19-21, 롬 15:19, 골 1:1). 23).
-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습니다(행 1:8). 보이는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라도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 16:1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행 2:42-47)?
-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사들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었고 마을 전체가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들이 속한 마을/도시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 사랑, 우리의 정체성.

- 이 우주 전쟁을 싸우는 자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미워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 각자가 자신이 속한 편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요일 4:20-21).
- 2 세기와 3 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비운 남을 위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의 전염병(Pandemic)이 160 년과 265 년에 지구를 휩쓸었을 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바쳤으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려 목숨을 내려 놓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